

국내 도계장의 출하, 수송 및 계류조건 실태조사

한경수*, 이순복, 김영태, 최양일, 김종원¹, 안종남², 채현석²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¹연암축산원예대학, ²축산기술연구소

소비자의 질적요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닭고기의 품질, 위생과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닭고기 등급판정기준에 의해 2003년 4월부터 닭도체의 등급판정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 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관, 외상, 신선도 및 변색 등에서 하자가 없어야 하므로 육계의 수송, 출하, 계류 등의 적정조건 도출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계장 규모를 소규모(3만수 이하), 중규모(3만~5만수), 대규모(5만수 이상)로 구분하여 각 3개소씩 9개소를 대상으로 수송 및 계류과정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계용 닭의 수집형태는 대규모 도계장에서는 위탁사육을 하였으나, 소규모 도계장은 일반농가에서 주로 수집하였다. 도계용 닭의 평균체중은 대규모와 중규모 도계장은 1.5kg내외가 주이나, 소규모 도계장은 2.0kg내외의 닭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의 절식시간은 4~6시간 내외로 유사하였으나, 수송부터 계류까지의 절식시간은 대규모 도계장이 11시간으로 소규모 도계장의 6시간보다 길었다. 도계용 닭의 상차방법으로는 대규모 도계장은 크레이트(박스형태)방식이 이용되었으나, 중규모 또는 소규모 도계장은 어리장방식이 이용되었다. 하차방법으로는 대규모 도계장은 케이지 이송방식이, 반면에 중규모 또는 소규모 도계장은 덤핑방식이 이용되었다. 수송시 5톤차량기준의 수송마리수는 2500~2700수 내외로 유사하였으나, 수송거리는 대규모 도계장은 50~100km이나, 소규모 도계장은 150~200km로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도계용 닭의 수송시기는 봄, 여름, 가을에는 주로 자정이후가 이용되었으나, 겨울철의 경우 오전과 자정이후가 모두 이용되었다. 계류시간은 소규모 도계장이 12~15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대규모 도계장은 10~12시간, 그리고 중규모 도계장이 6~8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대부분 차량계류방식이 이용되었다. 계류장내 시설조건은 대규모나 중규모 도계장은 지붕, 송풍기, 그리고 분무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규모 도계장의 경우 분무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도계장에서의 사계발생율은 여름, 겨울, 봄·가을순으로 낮아졌으며, 대규모나 중규모 도계장은 0.5~1.0%, 반면에 소규모 도계장은 1.0~2.0%의 사계발생비율을 나타냈다. 도계장에서의 2등급발생비율은 대규모 도계장 3.9%, 중규모 도계장 4.1%, 소규모 도계장 4.8%를 나타냈으며, 원인별로는 대규모 도계장에서는 멧계 및 흥계 발생이, 중규모 도계장에서는 멧계 및 흥계 발생과 골절계 발생이, 그리고 소규모 도계장에서는 골절계 발생이 가장 많았다.